

600년 역사를 지닌 도읍지 서울

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하류에 위치한 수도 서울은 선사시대 이래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백제 건국 초기의 수도였고, 이후 전략 요충지로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역사 문화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왔다.

서울시 산업경제의 특성

서울에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의 27.4%가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1,002,283개사 중 275,060개사가 서울에 있고, 이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특히, 서울의 산업구조는 1, 2차 산업보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각급 사무소 등 기타 사업이 70.4% (193,606개사)로 다른 지역과 다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자연자원이 없는 반면, 편리한 교통과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의 특성상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과 같은 3차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에 28.9km²의 공업지역이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 영등포지역이 9.55km²인 33%로 가장 넓은 공업지역을 분포하고 있고, 구로공단지역이 7.64km²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 등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지역이 서울 전체 공업지역의 81%로 산업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수도 서울지역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27.4%라는 산업체가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의 2002년도 산업재해율의 전국 평균 재해율의 0.77%보다 낮은 0.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만인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1.43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난방지 시스템은?

서울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공동 대응 계획의 미비, 지휘 체계 혼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미흡 등의 방재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재난재해 상황의 신고를 119로 일원화하고, 119 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소,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한 장소



에 위치시켜 중앙 집중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재난재해 접수에서 출동, 상황처리, 긴급구조, 응급복구 등 현장활동의 원격지휘 통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황에 따른 종합대응력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안전 체험 학습장



▲ 강풍과 폭우를 체험하는 학생들

>> 서울시민안전 체험관 <<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안전의식 부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3월에 개관하여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는 연일 어린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6월까지 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예약이 끝난 상태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된 안전체험관에서는 화재나 지진, 홍수 등 10여 가지의 기상 재난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을 체득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안전의 생활화,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국경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3번

(10시, 13시, 15시) 교육하며, 교육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된다.

※ 예약제 운영 : 02-2049-4000 또는 safe119.seoul.go.kr

>> 어린이 안전학교 <<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로 목숨을 잃은 어린 유치원생들의 부모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학교는 현장 체험식 교육과 흥미요소를 가미한 상호작용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유발요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리고 어린이 스스로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공동·단독주택, 횡단보도, 전화박스, 건물붕괴 등 18개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 전기 및 가스에 의한 사고, 배란다 추락사고와 같은 가정에서의 안전, 사고발생시 신고요령, 화재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불량식품에 의한 안전 등을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한다.

공휴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교육을 하는데, 일요일에는 4회(10시, 11시, 13시, 15시)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평일에는 3회(10시 30분, 13시, 15시)의 안전교육을 한다.

※ 예약제 운영

• 예약: 02-406-5868, 400-9255 또는 www.isafeschool.com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활동

서울에는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www.safety.or.kr)를 비롯해, 한국 안전생활교육회(www.childsafety.or.kr),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www.safelife.or.kr), 한국 아동 안전 관리 교육 협회(www.kisel.or.kr)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각종안전교육 체험장비를 장착한 트럭을 이용해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실시하는 한국안전생활교육회와 전국 7곳 교통공원에서 매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활동이 눈에 띈다.

특히,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서울지회에서는 450여명의 회원과 350개사에 매일 안전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며, 서울지역 재해율 0%의 꿈을 키우고 있다.



▲ 유치원생 소방안전교육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의 안전인을 만나서

>> 대우건설 박영운 안전관리팀장 <<

대우건설(남상국 사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상황에서 “투명경영”과 “안전경영 실천”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오픈기업이다.



안전경영 실천으로 재도약한 대우건설은 '97년부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었고, 2000년, 2001년 노동부 주관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업계 최다 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건설업계 최초로 2000년 11월에 안전경영시스템 OHSAS 18001 인증을 획득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지난해 대우건설 재해율 0.22로 10대 대기업중 재해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평균 산업재해율이 0.77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운 안전팀장은 “재해율은 상대성이다”라고 한다.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재해율은 줄어든다는 것이 박팀장의 말이다.

이러한 성과에는 남다른 활동이 있었다. 전직원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도와 업계 최고의 포상제도가 그중 하나다.

사장에서 여직원까지 직무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안전관리 정기평가 포상시 관련된 인원에게 연봉평가시 1등급까지 상향하는 제도는 자율적으로 안전문화를

지역 안전기행

정착하기에 충분한 제도다. 특히, 현장소장 SafetyChampion제도는 현장소장 개인 무재해 마일리지제도로 상호경쟁을 통한 자율안전을 피하고 있다.

>> CJ 영등포공장 경천호 과장 <<

CJ 영등포공장(유혁만 상무)은 세계 일류의 신상품 개발 능력을 갖추고, 미래의 가치있는 식문화를 창출하며, 고객과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49종의 제분을 비롯해 98종의 프리믹스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 대우건설 박영운 안전팀장

“함께 참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전 사고 Zero화를 위해 무재해 사업장 기반 구축, 안전관리 활동 Level Up 및 내실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CJ 영등포공장을 '99년에 TPM세계대회 대상을 수상하고, 2001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안전부분에서는 2002년 4월에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하였고, 지난해 5월에는 KOSHA 2000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것은 지난해 명예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지역 최우수상과 전국 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영등포공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전활동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유혁만 상무 직속의 안전 팀을 두고 안전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시스템과 EHS의 전산을 통해 현장의 불안한 요소를 사원 스스로 올려놓으면, 이를 조치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치결과를 피드백 해주는 시스템 등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앞서가는 안전활동이 인상적이다.

CJ 영등포공장의 경천호 안전과장은 「모든 생활에 기본에서 만들어지는 안전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지역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인들에게 한마디를 남긴다.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인들이 하나가 되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구성체는 여러 가지 있는데, 다소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며, 안전인의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최종덕기자〉



◀ CJ 영등포공장 경천호 안전과장